

'보이는 말씀'의 의미극 대화한고난주간 성찬예배드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우리 대학은 특별한 성찬예배를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3월 24일(목), 학부생 700여명과 외국인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목요 주간예배 시간과 신학대학원생 200여명이 참석한 목요 야간예배 시간에 성찬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통해 '보이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각 나라의 학생들로 구성된 드라마 팀은 '커뮤니오'라는 제목의 성극을 통해 예수의 성육신에서 부터 인간으로서의 성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과 성령을 보내심까지를 드라마로 재현 하였다. 이후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총장과 교수들이 떡과 포 도주를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직접 나누어 주며 주님의 식탁으로 학생들을 초대하였다. 이 날 전체 예배를 기획한 김다니 엘 교수는 2014년에도 이 대학 학생들과 "이마고"라는 90여분 가량의 뮤지컬을 선보여 구속사 전체에 흐르는 신학을 극으로 표현한 바 있다.

고난주간 성찬식

2016년 3월 24일(목),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은 목요일 채플을 연극을 통해 특별한 성찬예식으로 드렸다. '커뮤니오'라는 타이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간으로의 성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심과 성령의 임재까지가 재현되었다. 이후 각 나라의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팀이 등장하여 열방을 부르신 구속사역과 교회의 하나 됨

을 표현하였다. 연극에 참여한 이찬미(AIGS M.Div.)학생은 “연극을 통해 성찬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